

회의록

○ 일 시 : 2017년 9월 12일(수) 11:00

○ 장 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 회 순(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건심의
7. 기타사항 협의
8. 폐회

○ 상정안건(부의된 안건)

1. 2017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안)
2. 201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간 사(김동은) 지금부터 제4회 산내중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일동경례)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노일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
면서 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 사(김동은)	다음으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최이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완연한 가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위원 8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내중학교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1안 2017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사(이보미)	네,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이보미입니다. 2017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자료 설명함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최이헌)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노일환)	네, 이보미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진로 선택이나 동아리활동은 아이들 희망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잘했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보미 선생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최이헌)	네, 그렇군요, 과목 선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교 사(이보미)	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복수 응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최대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위원장(최이헌)	아이들이 바리스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가요?

교 사(이보미)	네.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최이현)	바리스타랑 요가에 관한 예산이죠? 그럼 바리스타를 하면 채용하면 가는 건가요? 여기로 오시는 건가요?
교 사(이보미)	여기로 오셔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위 원(안오순)	장소가 되나요? 교실에서 하게 되나요?
교 사(이보미)	네, 교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엔 강당이 준공되면 요가 같은 경우는 강당에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위 원(안오순)	강당을 쓸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산내에도 다 요가 매트랑 있어서, 장소가 없으면 곤란한데, 다 준비해 오신다니까, 예산 부분만 저희가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건가요?
교 사(이보미)	강사진 관련한 내용으로 심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최이현)	중학교 1학년만 대상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2학년 때에도 이 학생들만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인가요?
위 원(김인숙)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1학년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1학년 2학기 때 하게 하더라고요.
위원장(최이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최이현)	원안가결 동의 하십니까?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최이현)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2안 201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김현숙)	<p>네, 교무부장입니다. 2017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p> <p>- 제안자료 설명함 -</p> <p>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p>
위원장(최이현)	<p>운영규정은 아까 임기가 2년인데, 3조 7항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p>
위원들	<p>없습니다.</p>
위원장(최이현)	<p>그럼 2017학년도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관리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그리고, 그럼 위원님은 교원위원은 송미란, 김민혁 선생님이시고, 학부모위원은 하옥수, 오정윤, 김현숙 어머니님 이렇게 3분이 되시겠습니다.</p>

	<p><기타사항 협의></p> <p>그 외에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p>
위 원(안오순)	<p>네, 특수학급 설치 관련 건으로 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p> <p>내년도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회에 특수학급 설치 관련 해서 회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회의를 마쳤고, 2~3학년은 곧 회의예정인데, 내년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공간이 부족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듬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 교실 부족문제를 좀 해결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 꼭 특수학급을 만들면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p>
학부모대표(김현숙)	<p>3학년은 오늘 저녁에 할 예정이구요,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조건이 되고 요청이 있으므로 이것을 설치하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다만, 학교 사정이 있고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은 장소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p>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왜냐하면 중증인 아이가 내년에 당장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학교에 설치가 안 된다면 인월로 가야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구요, 제 생각에도 이게 의무교육인데 중학교까지는 어쨌든 집에서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게 맞지 않나,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게 맞지 않은가 하구요, 의견도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님도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경험이 있으시고, 저희 학년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우리 동네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 원(오선미)

저도 특수학급 갔다 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선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안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구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김인숙)

네, 저도 교사이면서 또 학부모 입장이기에,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심스럽더라구요. 교육이란 것은 다양한 체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통합교육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현재 아이들은 특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의 품안 그 말조차도 싫어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담당선생님과 여러 상담도 하고, 특수학생 관련 운영비 등도 오는데, 그런 특수 관련 지원비를 받게 되니까, 그런 특수에 대하여 왜 저만 받는지 등 그런 생각도 하도 있더라구요. 다른 친구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만 그런 혜택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여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되더라구요. 현재 재학 중인 특수 학생은 신체적으로 장애는 아니고 정신지체도 아니고 단지 약간 떨어지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력하고 하는 학생이에요. 새로 들어올 학생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전문적인 특수학교를 만든 이유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그 아이의

상처도 생각도 해봐야하구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전문 특수학교는 서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안오순)

네, 지금 교무부장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게 어떤 것인지 알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재학생의 경우엔 학생들과 통합수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긴 해요.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장애라는 말도 싫어하시고 학생들도 그런거에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년에 올라오는 아이나, 다음 해에 오는 아이의 경우엔 특수선생님이 붙어줘야하고 보조선생님도 붙어줘야하구요, 그 학생들은 어렸을때부터 같이 커왔고, 그 같은 학년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을 신청을 하면 관련 시설이나 특수선생님도 오시고 하시깐 담임선생님이나 학과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특수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특수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지도 잘 해주시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교무부장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이제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깐 그게 좀 고민스러운 측면이 아닐까 하지만 지혜를 모아보고 교육청에 적극 건의도 하고 해서 잘 해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장(노일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학교에 와서 그 아이가 정말로 교육효과를 거두고 졸업하고 나서 산내중학교 오길 잘했다고 하는 것이면 좋아요.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본관이 지금 지어진지 50여년 된 건물이고, 교실이 적다보니깐 걱정스럽고, 특수학급은 아마 1층에 해야될 것 같은데, 시설면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한울학교가 낫긴 하겠죠. 하지만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무엇이 옳고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잘 해서, 좌우간 해야된다면,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미리 개진을 해서 잘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각하시고, 곧 남원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학교의 상황도 고려하여 학부모님이 원하신다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위 원(김인숙)

네, 현재 저의 학교가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급식실이 없어서 가사실을 이용하고 있고, 음악실도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미술실과 기술실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정보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컴퓨터실도 없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면 잠시 쉬어야할 보건실도 없구요. 교직원 휴게실은 물론 없구요. 그래서 당장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미술도구를 놓고 수업할 수 있는 미술실, 컴퓨터실, 보건실 및 휴게실 등 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학부모대표(김현숙)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교육청에 가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더불어 특수학급도 같이 요청을 해야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수학급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실과 비교해서 뭐가 더 우선순위다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주변의 다른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니깐 학교에서는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최이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울학교에 가는 학생은 어떤 경우이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가는 학생은 어떤 경우이고, 그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교장(노일환)

한울학교는 원래 학교 자체가 특수학교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비했구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은 주로 중증이 아닌 경우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이 있는 것이죠.

위원장(최이헌)

저희 마을 근처에 한울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보면 현재 잘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 아이

	한테 어떤 학교가 맞는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도 생각하구요. 전문가의 의견도 어떤지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거같네요.
위 원(오선미)	네, 그래서 전 이런 내용을 해당 학부모님과 학교랑 많은 상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서로 상황과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수업하는 게 중요한거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너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로 인해 제대로 잘 못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안오순)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에 의하면, 그 특수 학생들이 같이 다른 곳 가는 것 보다는 산내중학교에서 좀 같이 지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최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학부모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후 관련 공문이 오면 의견을 잘 전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네, 없습니다.
위원장(최이현)	그럼 이것으로 산내중학교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6명	최이현, 오선미, 안오순, 노일환, 김인숙, 송미란
기록자	간사 행정실장 김동은 (인)